

『벤처캐피탈의 役割과 課題』: 書評

姜文秀 著: 韓國開發研究院 刊(1987) 總236面

金 知 壽

*

지난 과거의 우리의 經濟成長政策은 모방기술에 의한 勞動集約的 製品의 輸出增大를 통하여 이루어져 왔으나 80년대에 들어 국내산업부문간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대외경제여건의 악화로 우리 경제의 持續的 成長 可能性을 위협하는 상황이 전개됨에 따라 당면한 난관을 돌파하고 成長推進力의 재충전을 위해 강력한 技術開發드라이브政策을 추진하게 되었다. 즉 經濟成長策의 基調는 개량된 技術, 모방 아닌 新技術開發로 대외경쟁력을 강화하여 附加價値 提高 및 産業構造 高度化를 달성하고자 하였고 이를 위해 민간기업의 기술개발 투자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각종 開發支援策을 강구하였다.

특히 1980년 이후 持續的 技術優位政策 추진으로 최근 科學技術投資額이 GNP對比 2% 線으로 꾸준한 신장세를 보여 온 것은 바람직

한 반면 국내 민간기업의 研究開發投資는 아직도 선진국 수준에 미흡한 형편이다. 賣出額對比 研究開發投資, 技術開發의 成長寄與度 등은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의 절반 정도의 수준을 보여주었고 獨自的 技術開發能力은 선진국의 1/10 내지 1/30 수준을 보여주었다.

원래 技術開發投資의 特性은 危險性, 不確實性, 長期懷妊性을 포함하고 있기에 벤처캐피탈은 “新技術을 企業化하는 冒險的 技術創業人 또는 技術革新에 도전하는 技術集約型 企業에 대하여 사업수행에 따른 初期危險을 분담하면서 과감히 투입되는 資本”으로 정의되고 있다. 이러한 본질로 인하여 第2章에서 著者는 벤처캐피탈, 즉 冒險資本을 “企業을 開發하는 企業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바 이는 技術開發投資의 特性을 잘 나타내는, 成長이 기대되는 발전단계 초기의 기업등에 대한 資金을 供給하고 投資先企業의 成長을 지원하고자 하는 企業 또는 投資家그룹을 지칭하고 있다. 따라서 여러 단계의 資金支援, 成長支援, 上場時의 持株放出 등 벤처캐피탈의 기능과, 경영기반과 신용이 취약한

新生企業에 資金供給과 經營支援과 함께 산업 구조를 고도화시키는 등 국민경제의 활성화에 대한 기여, 非上場中小企業을 대상으로 增資를 통한 資金調達 권유 및 自己資本의 擴充을 도모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第3章에서는 벤처企業의 國民經濟的 意義와 現況을 다루고 있다. 지난 10여년간 先進産業 社會에서의 벤처企業의 擡頭와 急成長은 工業化社會에서 情報化社會로 이행하는 시대를 반영하는 하나의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흐름에 우리도 예외일 수 없다는 사실은 80년대 들어서 경제정책의 기조가 安定成長政策으로 전환됨에 따라 中小企業의 育成과 技術集約的 産業의 育成이 강조되기 시작하여 이에 따라 벤처企業에 대한 관심도 고조되어 최근 수년간 벤처企業의 登場과 發展을 시사하는 사례에서 엿볼 수 있다. 그러나 선진국 특히 美國에는 技術·勞動·資金調達 등의 많은 면에서 벤처企業의 生成發展에 이바지하는 사회적·경제적 풍토가 조성되어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벤처企業이 독자적으로 生成發展하는 데 불리한 사회적·경제적 풍토를 지니고 있다. 아울러 著者は 벤처企業의 국민경제적 의의를 중소기업 전체의 활성화 선도, 기술개발기반 강화, 지역경제 활성화에의 공헌 및 산업조직 활성화에의 공헌 및 산업조직 활성화에의 기여 등에 두면서 우리나라 벤처企業의 現況과 進出分野 및 展望을 설명하고 있다.

第4章에서는 우리나라 벤처캐피탈의 歷史, 業務·投資實績 등으로 본 現況과 專門4會社의 收益狀況, 中小企業創業投資會社, 技術信用保證制度, 벤처캐피탈의 國際化 및 그에 대한 기대 등을 망라한 전반적 현황을 다루었

다. 아울러 資金調達, 運營, 技術的 基盤, 投資資金의 回收 및 租稅支援 등의 관점에서 벤처캐피탈의 문제점도 함께 다루었다.

第5章과 第6章에서는 美國, 日本 및 英國의 벤처캐피탈 現況과 育成策을 다루면서 美國의 경우 冒險産業의 發展을 단계별로 설명한 뒤 概要와 成長背景도 함께 다루었다. 특히 美國의 中小企業投資會社(Small Business Investment Company, SBIC)의 動向을 자금조달, 投融資 및 收益現況, 사업성과 등으로 살펴보고 民間벤처캐피탈의 동향과 벤처캐피탈 지원 정책과 제도를 店頭市場, 中小企業 技術革新 促進法 등으로 살펴보았다. 일본의 경우 公共 및 民間部門의 벤처캐피탈을 다루면서 특히 研究開發型 企業育成센터(VEC)를 半官半民 형태의 재단으로, 새로운 기술과 제품 등의 연구개발 및 그 기업화를 목표로 하는 새로운 유형의 中堅·中小企業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목적으로 1975년에 설립된 公的벤처캐피탈로 벤처企業에 투자나 용자는 하지 않으나 研究開發 推進 中小企業에 대한 債務保證制度 運營을 특징으로 다루었다. 영국의 벤처캐피탈은 1981년 이전과 이후로 구분할 수 있다. 1981년 이전에는 주로 용자에 주력하였으나 대처首相 政府가 들어선 1981년 이후에는 중소기업에 대한 관념을 바꾸어 未來經濟成長의 열쇠를 쥐고 있는 새로운 중소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벤처캐피탈産業의 육성과 이에 대한 동향과 전망, 그리고 非上場證券市場 등을 다루고 있다.

第7章에서는 벤처캐피탈의 發展을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즉 벤처企業이 産業構造의 技術·知識集約化를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기에 이를 위한 정책의 기

본방향을 살피고 자금조달의 원활화를 위하여 中小企業 創業投資會社の 育成, 投資事業組合 制度의 活用, 벤처企業育成센터의 設立運營과 아울러 자본시장을 통한 벤처企業의 資金調達 등을 논의한 뒤 이러한 벤처캐피탈의 국제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대책을 다루었다. 아울러 研究開發基盤과 環境을 정비·강화하고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기술개발과 관련한 稅制上의 지원을 언급하였다. 또한 벤처캐피탈의 體質強化를 위한 經營·投資方針, 調查選別能力提高와 함께 벤처캐피탈이 특히 投·融資對象企業을 判別하는 능력과 經營上의 자문을 하고 그 활동을 지원하는 것 등이 모두 개인의 능력에 크게 의존하고 있기에 우리에게 적합한 型의 벤처캐피탈리스트 育成의 중요성을 지적하면서 고려되어야 할 主要點들과 벤처캐피탈리스트로서의 資質과 特性을 다루면서 미국과 일본 또는 각 국가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는 벤처企業의 概念과 範圍를 끝으로 논의하였다.

마지막 第8章에서는 논의된 主要한 內容과 政策方向, 그리고 우리나라의 벤처캐피탈이 지니고 있는 문제점들을 要約하면서 벤처캐피탈이 미국에서 현재와 같이 성공하기에 30여년이 걸렸고 일본에서도 이미 20여년이 지났음을 감안하면 우리나라에서도 벤처캐피탈產業이 발전하는 데 오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나, 각종 障礙要因을 극복하고 벤처캐피탈을 육성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韓國型 벤처캐피탈의 發展을 꾸준히 추구하여야 한다고 끝을 맺었으며, 附錄에는 中小企業 創業支援法 및 施行令, 新技術事業金融支援法 및 施行令을 실어 참고토록 하였다.

벤처캐피탈에 대한 研究는 최근 활발한 환

경에 접어들었으나 아직도. 벤처캐피탈 또는 벤처企業이라는 用語 자체가 근년에 사용되어지기 시작했기에 많은 研究者의 관심을 끄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그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그렇게 많은 研究著書가 출판되어 있지 않은 현실에서 韓國開發研究院의 姜文秀 博士가 많은 文獻과 資料를 활용하여 『벤처캐피탈의 役割과 課題』라는 著述을 한 것은 이 분야에 관심을 갖고 있거나 연구에 종사하는 많은 사람과 학계에 큰 貢獻을 했다고 생각한다. 벤처캐피탈의 成果가 선진국, 특히 미국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남에 따라 많은 나라에서 이에 주목하고 성공적인 벤처캐피탈產業 育成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이때 本書는 關係研究者 및 政策立案者에게 훌륭한 참고서일 뿐만 아니라 정책방향의 새로운 제시를 위한 자료로 활용되는 길잡이가 되리라 본다. 다만 시간이나 여타 제약으로 인하여 깊이 다루지 못한 것의 하나로 우리나라의 店願市場에 관한 논의가 아쉽다. 물론 현재 開設되어 있는 韓國의 店願市場이 아직 제대로 뿌리를 내리지 못한 초창기에 있다는 점을 인정하더라도 벤처캐피탈의 機能이 제대로 움직이기 위한 店願市場의 重要性은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기에 우리의 현실에 적합한 店願市場에 관한 研究內容이 앞으로의 체계적 연구에 포함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또 벤처캐피탈의 役割이 제대로 수행될 때는 既投資된 資本을 언제 어떠한 방식으로 회수하여 다시 適當한 投資對象의 資本으로 활용되는 乘數效果를 높이는 과정을 거치게 되리라 믿으며 이러한 Exit Mechanism 에 관한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졌다면 錦上添花가 되었으리라 생각된다.

끝으로 향후의 研究課題와 관련하여 생각하

면 附錄의 支援法과 施行令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本書에서 다룬 벤처캐피탈의 役割과 課題를 이루기 위하여 실제 현장에 적용할 경우에 대두될 수 있는 현실에 입각한 여건을 고려하여, 제기된 다양한 좋은 방안을 수렴할 수 있는 支援法과 施行令을 체크하고 不備된 점이 있으면 補完하고 좋은 方法은 더욱 같고 닮는 방향의 形而下學的 觀點에서의 연구가 다음에는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며, 이는 우리나라의 많은 立法過程이 拙速行政에서 과생된 경우가 드물지 않기에 蛇足으로 添言하고자 한다.

本書는 學界 및 關聯從事者에 대한 귀중한 貢獻임과 아울러 우리나라 벤처캐피탈 研究에 관한 總括書로서 새로운 轉機를 마련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앞으로의 벤처캐피탈과 벤처企業에 관한 制度의 마련 또는 改善 및 政策立案에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